"'반야심경' 사랑에 감사…내게 불교는 지혜 원천"

Interview
AI뮤직 크리에이터 곰딴

어머니 위해 만든 '불교 AI뮤직'
알고리즘 가피 받아 조회수 급증
천수경 봉독 중 睡魔 이기며 희열
'참회 천수경' 제작으로도 이어져
"불교 공부하며 공덕 나눔" 발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AI뮤직'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시작을 알린 크리에이터가 유튜버 '곰딴(Gomdan, 이하 곰딴)'이다. 지난 6월 9일 올린 '반야심경(Heart Sutra)' AI뮤직 콘텐츠는 현재 32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불교 AI뮤직'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후 곰딴은 구독자들의 성원으로 '반야심경' 2시간 연속 청취 콘텐츠와 〈천수경〉을 바탕으로 한 '참회 천수경' 등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곰딴의 '반야심경' 콘텐츠에는 '이거 듣고 불교 입덕(입문을 의미하는 은어)함' '천주교 신자이지만 부처님 법이 이리 흥겨울지 몰랐다' 등의 댓글 1100여 개가 달렸다. 이웃 종교 신자마저 매료시킨 AI뮤직 콘텐츠 '반야심경'의 제작자 곰딴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신원 공개는 원치 않아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대체한다.

이하는 이메일로 이뤄진 일문 일답.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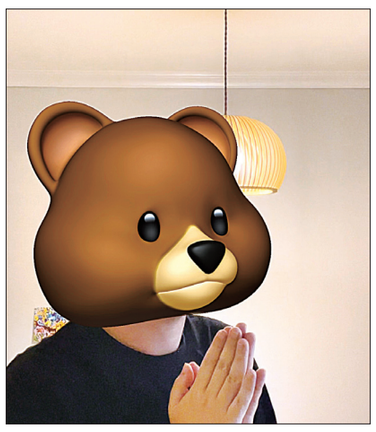
A 저는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재단법인 교육기관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이자 '곰딴(곰들의 딴 길찾기)'이라는 콘텐츠 융합 문화산업 관련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4살배기 딸아이의 아빠이며, 꿈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불자이시고 친가는 전통적으로 불교집안입니다. 가족 중에는 비구니스님(현재는 환속)이셨던 분도 있습니다.

Q 원래 음악을 했는가요.

A 중학교 때 처음 컴퓨터음악(MIDI, DTM)을 접한 이후, 음악을 공부해 싱어송라이터, 인디뮤지션이자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학업 및 취업 문제, 생계 등으로 인해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전문 음악인의 길을 포기했죠.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며 취미로 음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Q '반야심경' 제작 계기는.

A 어머니께서 경북 청도에서 자그마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업력이 15년으로 나름 지역 맛집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집 근처 사찰에 기도를 다녀오는 불자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데, 정작 몇십 년동안 음악을 했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곡 하나를 만들어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게에 편하게 틀어놓고, 기분 좋게 들으실만한 음악을 만들어 선물로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반야심경'이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AI뮤직 크리에이터 유튜버 '곰딴'.


'반야심경' 콘텐츠에 사용된 일러스트. 곰딴이 직접 제작했다.

Q '반야심경'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머니를 위한 작은 마음에서 만든 곡이 이렇게나 많은 분께서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모두의 '반야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곰딴 채널 구독자 지칭)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Q '반야심경'을 2시간 분량으로 제작했습니다.

A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 선생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염원하시는 바에 또 부응을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1~4시간 버전을 요청하셨고, 그 바람을 이뤄 드린 것 뿐입니다.

제작 당시에는 비록 영상 분량으로 인한 용량의 압박은 있었지만 조금이나마 쉽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게 도리인 것 같았습니다.

Q 최근 '반야심경' 커버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A '반야심경'을 커버한 진세란 님은 네이버 치지직에서 개인방송으로 하시는 분이며, 불자이십니다. '반야심경'이 막 알고리즘을 탈 때 개인 작업을 위해 연락주신 크리에이터가 몇 분 계셨는데, 진세란 님이 그 중 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AI뮤직 제작자 '월터의 상상'님도 반야심경 커버곡을 제작해 보고 싶다고 해 기분좋게 응원해 드렸죠. 모두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Q 최근 '참회-천수경'을 제작하셨습니다.

A '반야심경'은 순수하게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후속작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후속작을 고민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얕고 미천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부터 인연이 있던 불교 크리에이터 다문(Pure_ananda) 님과 프라즈나(prajna_sso) 님이 경전의 다양한 종류와 형식, 역사 등의 기본적인 지식부터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Q '참회-천수경' 제작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A 다문, 프라즈나 님을 만나기 전날 직장 업무와 음악 제작으로 밤새 일해 엄청나게 피곤했습니다. 두 분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죄송하게도 졸고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구업진언을 외고, 십악참회문을 읽고, 참회진언을 외우자마자 잠이 싹 달아나며 알 수 없는 희열이 몰려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십악참회를 중심으로 '참회-천수경'이라는 곡을 쓰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물 흐르듯 〈천수경〉의 내용을 토대로 전체 흐름을 구성하게 됐고, 곡도 명쾌하게 진행되며 '참회-천수경'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Q 무교라고 했는데 종교에 관심이 많은가요.

A 제게 무(無)라는 것은 '없는 것'인 동시에 '모든 것'입니다. 사실 제 이름에 '검을 현(玄)자'가 들어가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현은 우주와도 같다. 우주의 무가 곧 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제 나름대로 탐구를 하였는데, 우주 공간은 검은 바탕에 아무 것도 없어 보이지만, 암흑물질로 존재하며, 비어있는 공간에도 사실은 산소와 질소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에 정의나 가치, 의미, 형태를 두지 않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 기독교의 사랑과 자기희생, 유교의 인(仁)·예(禮) 등은 모두 저에게는 빛나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Q 향후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지요.

A 이왕 이렇게 된 것, 불교를 즐겁게 공부하여 그 공덕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해 예술, 문화, 인문, 종교 전반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러닝메이트(Running Mate)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은 그 출발선에서 막 뗀 첫 발걸음이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월결사, 불교 동아리 2배 늘렸다

1년 간 동아리 58→104개 증가
상반기에 4억9000여 만원 지원
'영캠프', 대법회 참여 연계키로

한국불교 대학생 전법 불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의 활동으로 대학 불교동아리가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7월 22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업 보고 및 하반기 전법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상반기 사업 보고를 통해서는 대학생 전법 인프라가 1년 사이 빠르게 확충됐음이 확인됐다. 보고에 따르면 2023년 7월 6일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는 58개에서 104개로 늘었다. 이중 81개 대학 불교동아리가 운영지원금을 지원 받았으며, 육군사관학교 및 6개 사관학교와 육군 훈련소 및 5개 훈련부대에 불교동아리 및 법당 운영지원금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상월결사는 상반기에만 불교동아리 및 법당에 4억 4880만원의 운영기금을 지원했다. 또한 창립을 준비 중인 불교동아리 44곳에 총 4400만원의 창립준비지원금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집행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영캠프'를 현재 조계종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불교도 대법회'에 참여로 연계키로 했다.

박기련 상월결사 정책기획단장은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상월결사 영캠프'를 제언하신 것은 전국 대학생들을 모아 역량을 결집하는 데 기인한다"면서 "동국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자학생들의 영캠프는 내년까지 차근차근 준비해도 될 것 같다. 올해에는 9월 28일 예정된 불교도 대법회에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하는 '영캠프'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월결사는 하반기부터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에 불단(佛壇) 조성 및 불구(佛具)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상월결사 사무국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대학별 해당 교구본사와 동아리 지도법사·교수 협의와 집행위 심의를 통해 지원되며, 오는 9월 중 사업 전반에 대한 공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미얀마 군부, 인권·종교 탄압 중단하라"

불교인권위 7월 22일, 국회서
"국제사회 관심 · 연대" 촉구



지난달 19일 미얀마에서 불교계 원로 스님 바단타 무닌다비완사(78)가 군부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불교인권위원회가 이를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를 향해 "인권·종교 탄압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학살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는 7월 2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미얀마 군부의 종교·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우리는 미얀마 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성지순례 안내**



- 백중 회향 및 가을순례를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과 기도는 희망의 미래불교를 만드는 불사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순례 안내 : 사찰(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또는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기념품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스님이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0-0883 (조계종 미래본부) / 열암곡 순례정보 ▶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아름다운 동행) 문의 : 02-6273-0108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